

참된 생명을 누리는 삶 (요한일서 5:11-15)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은 생명을 누리는 삶이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라고 말씀하셨다. 이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말은 그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린다는 것과 같은 말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안에 이 생명을 두시고 그 아들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누릴수 있도록 하셨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우리는 바로 생명을 누릴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구원 받았다. 더 이상 저주와 문제는 없다. 끊어졌다. 이런 말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고백하기만 하면 생명을 누린다. 한마디로 그제서야 살맛이 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들어본적은 있지만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생명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누리게 된다. 정확하게 말하면 죽음의 증상들을 누리게 된다. 죽음의 증상이 무엇인가? 괴로움, 걱정, 근심, 실망, 질투, 시기, 화냄, 조급해짐, 한마디로 우리를 괴롭게 하는 모든 감정의 상태들, 그것들이 바로 죽음의 증상이다. 우리가 살면서 문제는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런데 만일 우리에게 이 복음이 없어서 문제로부터 벗어날수가 없고 모든 문제는 하나하나 빠짐없이 모두 괴로워해야 한다면 그것만큼 힘든 인생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 문제가 꼭 우리에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 세계적인 외과의사인 폴 브랜드박사는 ‘고통이라는 선물’이라는 제목의 책을 썼다. 그 책에서 고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몸의 문제가 있음을 알아 차릴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치유될수 있는 것이다. 일전에 제가 잘 아는 분이 치질인줄 알고 병원에 갔다가 직장에 암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가족들은 이분이 갑자기 암에 걸렸다고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다들 흑암이 덮여버렸다. 그러나 오히려 정작 본인은 발견이 빨리 발견하게 되어서 다행이다 이런 말을 했다. 똑같은 사안을 놓고 보는 관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것이다. 그분은 다행히 많이 진행이 되지 않아서 바로 치료하고 지금은 건강해졌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그렇다. 이렇게 보면 큰 문제일수도 있지만 반대로 보면 큰 응답일수가 있는 것이다. 이것은 단지 문제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일들에 다 이런 면들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마찬가지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셨다. 이것도 언약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내가 받은 가장 큰 축복이라고 말할수 있다. 그런데 잠시 잠깐 사단에게 속아서 관점이 조금만 빗나가게 되면 내가 왜 나의 바쁜일을 제쳐두고 교회를 위해 살아야 하나, 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왜 내가 바쳐야 하나, 이렇게 속기도 한다는 것이다. 물론 우리 모두는 언약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안계시겠지만, 특별히 어려움과 문제, 특히 자녀들에게 생기는 문제들, 믿음만으로는 견디어 내기 힘든 일들이 해결될 것 같지 않을 때, 우리들은 잠시 고민하게 된다. 이때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사실이 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옮길 것이다가 아니라 옮겼느니라. 이미 다 이루셨다는 것이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단 한번의 인생밖에 살지 못합니다.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문제로, 고통으로 밖에 누릴수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고통이 아니라 축복이 될수 있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별볼이 없어 보이는 나의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니야, 너의 인생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될수 있어”이것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볼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리고 어려움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답이라고 말할수 있는 인생이 된 것이다. 이것을 답이라고 말할수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세계복음화의 증인이 될수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13절의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놀라운 축복 권세가 이미 있음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는 이미 이런 놀라운 권세가 있음을 믿기 바란다. 그러므로 참된 생명을 누리는 삶은 우리가 의무적으로 살아내야 하는 삶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축복의 삶이며

내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사모해야 하는 삶인줄로 믿는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우리가 누리기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마음에 담고 순종하기만 하면 당장 오늘부터 우리는 생명을 누리기 시작할 것이다. 그래서 이 참된 생명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1. 내가 누구인지 결정하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내 스스로 확신하고 결정하라는 말이다. 다시 말하면 나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겠노라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결정하라는 것이다. 나는 내가 정말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이것을 스스로 질문해봐야 한다. 이 질문은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함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쉬운 질문이 아닐수도 있다. 그렇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결정이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내가 싫으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로마서 10:10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믿음은 두단계를 거쳐서 완성된다는 것이다. 먼저 지적인 동의가 선행된다. 그 내용이 믿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내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 내용을 중심으로 행하는 것이다.

제가 지난 달에 피검사를 했더니 콜레스테롤이 높다는 결과를 받았다. 그런데 아직은 심각한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의사선생님께서 음식으로 조절해 보자고 하셨다. 그래서 음식으로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다. 고지방음식과 단 것 줄여야 되고, 제가 좋아하는 에스프레소 커피를 그냥 내리는 커피로 바꿔야야 한다는 것이다.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간 것 먹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충분히 이해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해했다고 해서 제 콜레스테롤 수치가 내려가는 것은 아니다. 그 이해를 바탕으로 음식 조절을 했을 때 내려가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마음으로 믿을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나의 입으로 시인하는 의지적 결단까지 가게 되었을 때 드디어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렇게 구원에 이르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다. 오늘 본문 12절에 하나님은 아들이 내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신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거하며 살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생명을 누리게 된다. 생명을 누리면,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축복으로, 응답으로 누릴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자녀로 살겠다는 것 믿음의 결단 하나가 얼마나 놀라고 큰 축복인지 모른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나의 신분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확정하시기 바란다.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바꾸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안 믿고 있었어도 나의 삶을 가장 완전하게 인도해오고 계셨음을 믿기 바란다. 때때로 살아가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신뢰할 수가 없고 불안하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때도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그 원인은 바로 내 안에 있음을 알른 발견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바꾸신 것은 바로 나의 운명, 저주, 팔자를 바꾸신 것이다. 사단이 건들기만 하면 흔들리던 나였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더 이상 나는 흔들리지 않게 된 것이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것 요구한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선물은 주는 사람의 제안과 받는 사람의 수락으로 완성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제로 세계복음화 증인이라고 하지 않으셨다. 강제로 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하나님 떠나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인격적인 사귀기를 통해 하나님으로 찬송받기 원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모든 것을 선택하게 하신 것이다. 더 나아가 내가 그 선택을 할수 있는 축복도 우리가 뭐라고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라고 할수 있겠는가? 그런데 내가 내 의지로 하나님의 선물을 선택했을 때, 다시 말하면 내가 평생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노라고 결정했을 때 그 때부터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부족함, 믿음 없음에 자신없어 하지 말고, 오직 이 말씀을 의지해서 나는 하나님의 생명 누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붙잡기 바란다. 남이 나에게 니가 무슨 제자냐, 니가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말하는 것 전혀 신경쓸 필요가 없다. 내가 내 안에 나는 누구인가가 정확하면 누가 뭐라하든 상관 없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것에 관심을 두신 것이 아니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것에 관심이 있다. 그러므로 내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내 의지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붙잡고 나아가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삶을 날마다 누리게 될 줄로 믿는다.

2. 기도로 누려라.

두 번째,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이 참된 생명의 삶을 기도로 누리게 바란다. 본문 14절 말씀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들으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냥 기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로 우리는 참된 생명을 누리실 수가 있다.

기본적으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소원까지도 알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즐기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다 보면 오히려 나의 불신앙이 발견되게 되고 나의 부족함이 발견되게 되는 것이다. 나의 열등감과 나의 상처들이 발견되게 된다.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내가 얼마나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 속 좁은 사람이었는가 깨닫게 된다. 그리고 내가 너무나 이기적이었음도 드러나게 된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손대미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복음의 참된 의미에 클릭이 되게 되면 그 순간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에게 각인되었던 것들로부터 해방되어진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성숙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예를 들면 어느 집을 방문했는데, 그 집의 인테리어가 너무 깔끔하고 잘 되어 있으면 그 집을 보고 나서 집에 돌아온 다음에 잘 정돈되어 있지 않은 나의 집을 보고 어떻게 하겠나? 나도 정돈을 좀 해야겠다. 정리를 해야겠다 생각이 들지 않겠는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헤아리다 보면 거기서 부족한 내가 발견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마음으로 사모하게 되고, 그렇게 해방되어 성숙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기만 해도 우리의 삶을 넉넉히 바꾸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란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해도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의 인생을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란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다. 왜 하나님은 나의 뜻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때만 우리들은 나를 옳아맨 모든 문제와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바라볼때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생명을 누리며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우리를 살리려고 주신 것이다. 그리스도 누리라고 주신 것이다. 기도 앞에 언약이라는 단어가 붙든, 중보라는 단어가 붙든 상관없다. 모든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란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시기 바란다. 그러면 내 인생은 생명의 능력으로만 가득차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이유이다.

그런데 기도하면서도 오히려 우리는 때로는 잘못된 기도를 할 때가 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엮매는 모든 사단권세로부터 해방되어 기쁨을 누리는 것인데, 잘못된 기도는 하나님이 아니라 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다. 내 생각, 나의 의, 이런 것을 자꾸 바라보면서 심하게 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어떻게 좀 해보자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미 나를 잘 알고 계시고 계속 바라보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자꾸 나만 봐달라고 하는 것 잘못된 기도이다. 이런 기도는 절대로 우리에게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

15년 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 한 청년이 다른 여자 청년을 좋아했다. 그런데 그 여자 청년은 그 남자를 좋아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여자청년과 연애를 하기 위해서 40일 작정 새벽기도를 시작했다. 새벽기도를 시작한지 2주일만에 바로 그 결과가 나타났다. 2주만에 그 여자 청년에게 다른 남자친구가 생겨버렸다. 이게 기도의 능력인지는 모르겠다. 또, 어떤 분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서 저에게 자기가 사업 성공하면 50%를 선교헌금할거니까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했다. 나는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벌어야 성공한것 입니까 그랬더니 일년에 매출 백만불 정도를 이야기 했다. 이런것들은 믿음도 아니고 기도도 아니고, 사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협박이다. 하나님 적어도 나에게서 50만불의 선교헌금을 받고 싶으면 최소한 나에게 백만불은 벌게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 안들어주시면 나 40일 금식합니다. 금식하다가 죽을수도 있어요. 본인들은 그런마음 아니었다고 하겠지만, 그게 그런 의미인 것이다. 하나님이 바보가 아닌 이상 하나님이 이것을 모르시겠는가?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나랑 관계가 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즐기려고 하고 내 뜻을 알려고 하고 나와 더불어 살려고 하는 사람은 친구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친구로서 좋은 관계를 맺으며 같이 살게 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데 나를 투자의 대상으로 생각하거나 나의 도움만을 기대한다면 과연 나는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될까? 분명 나는 그 사람이 나를 모독하고 있다고 간주할 것이다. 인간 사이에도 그런데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봐 달라고, 투정부리고 협박하고 그러는 것은 기도도 아니고 아주 저급한, 근본없는, 하나님 떠난 인간의 본성일 뿐이다.

그러므로 내가 바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면 하나님은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생명을 누리게 해주신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살맛나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기 바란다.

3. 하나님을 즐겨워하라.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결론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대요리문답에 보면 제 1조에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무엇인가?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겨워함이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때 그 사람을 즐기게 된다. 아들 딸 자식이 있는 분들은 다 느끼실 것이다. 아들 딸이 뭘 안해줘도 같이 있어도 마음이 든든하고 기쁘다. 아들 딸이 밥 잘먹는게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이 밥 한끼 든든하게 먹는 그 모습을 우리는 즐기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면 그 커피가 맛이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함께 마시는 사람을 즐기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즐겨워하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나에게 즐거운 일이 된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즐겨워하셨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즐겨워하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신 것이다. 요한복음 1:12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기 위하여 하신 일이 무엇인가? 바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비워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이다. 왜? 스바냐 3:17절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즐겨워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을 즐겨워하며 누려야 하지 않겠는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감격을 잃어가고 시험에 빠지고 힘이 빠지는 것은 왜 그런가? 사실 잘못된 것은 하나도 없다. 그것은 어찌면 나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즐겨워하고 사랑하기보다는 의무로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일 것이다. 이 시대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는 일들이 즐거움이 되지 못하고 일이 되고 의무가 되어버리는 시대가 되어 버렸다. 사실 언약을 누리고 복음 전하고 전도자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단 하나,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느냐, 그리고 그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되는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나에게 즐거움이 될 때 비로소 증명될 것이다.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돕다 보면 정말 언약을 붙잡고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된다. 그런데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이 이기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만일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더 하나님을 즐겨워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것에 노력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러면 모든 문제가 변하여 생명이 되고 우리는 날마다 참된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될줄로 믿는다. 뿐만 아니라 세계복음화를 향한 우리의 사명도 의무가 아니라 즐거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 그리스도안에 있는 참된 생명을 하루하루 누리며 살아가갈 때 우리들은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큰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도 오히려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리는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오늘도 이 답을 승리하는 모든 임마누엘가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